

“주민 건강증진·체육복지 향상 서비스 제공”

오경애 광주 북구 국민체력인증센터장

개인·생애주기·수준별 맞춤형 운동·체력관리 지원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도 확대

“국민체력인증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체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북구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지난달 25일 신안동에 문을 열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곳 센터장으로 임명된 인사 가 엘리트 체육인 출신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주인공은 북구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낸 오경애(53) 센터장으로 풍부한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통한다. 동명여중, 광주여고 시절 소년체전 등 각종 육상대회에 출전해 두각을 나타내며, 5년2개월(1981~1986년)간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선수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촉망받던 육상 기대주였으나 다리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찍이 은퇴하게 됐다. 이후 오 센터장은 이 위기를 전하위복으로 삼아 체육지도자로서 꿈을 키우며 청소년들을 지도했고, 제13회 대구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제대회에서 중앙심판으로도 활동했다.
그런 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다. 선수시절 선수들을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 아쉬움이 많았고, 지도자 시절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피부로 크게 느꼈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육상 꿈나무를 지도하며 맞춤형 체력관리를 꿈꿔온 제가 이번 국민체력인증센터



를 맡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또, 북구 주민들에게 일대일 운동지도와 운동처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개인별 생애주기별 건강유지를 위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건강운동관리사의 수준별 운동지도와 과학적인 체력관리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이달의 체력왕, 홍보왕 등의 이벤트를 통해 체력인증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더욱 더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센터장은 “홍보가 달기 힘든 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어르신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한 번도 안 온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온 분은 없는 북구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력인증센터(북구태봉생활체육관)는 국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정부사업으로 북구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신규 인증센터로 선정됐다. /최환준기자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대표 이영숙)는 8월 수산물 원산지 홍보 대상 장소를 광주 전통과 문화가 숨쉬고 있는 말바우시장으로 선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및 광주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 13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판 배부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법을 지도·안내했다.
이 회장은 “원산지표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전통시장에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지기자

서구 동천마을 ‘마을에서 방학나기’ 봉사활동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마을 교육네트워크는 여름방학을 맞아 ‘마을에서 방학나기’라는 주제로 서로 돌봄 등 봉사활동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광주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진행되며, 방학기간동안 교육과 육아의 문제를 마을의 공동체간의 상호협력으로 해결하도록 기획·추진되고 있다.
동천마을 교육네트워크에는 동천교육공동체 마실, 감이지동 작은도서관, 물만난 사춘기 천사공동체, 광주여성회가 함께 참여해 각 단체가 그 간에 쌓은 노하우를 서로 나누며 진행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초등학생을 위한 ‘재미있는 한국사 이야기’, ‘마을유물을 찾아서’, ‘신병나는 우리가족’, ‘스마트폰 no, 보드게임yes’, ‘놀이와 유적공원 워크파크 뭉칠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Let's 마·봉’ 청소년 마을봉사단 운



영을 통해 급식봉사, 마을 자율방범대 활동, 마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활동 등이 있다.
교육공동체 마실 서채정 대표는 “방학 때만 되면 사교육으로 물리는 아이들을 보며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어른들의 관심과 의지로 사업이 시작됐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함께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담양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행복동행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금성면 치매안심마을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안심관리사, 자원봉사학생 등이 함께한 가운데 ‘치매환자 행복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에 노출돼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의 악기 연주 등의 재능기부, 댄스프로그램, 추억담기 기념사진 등을 진행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금성중학교(교장 남국덕순)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치

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실시해 교육을 이수한 15명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창작치매예방제조와 악기연주 등의 재능기부를 지난달 23일부터 가가호호 방문해 함께했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관리사가 매 주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담양군 치매안심센터 강경숙 치매지원담당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복동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도시공사, 제5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3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5기 광주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총 6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수강생들은 우리지역의 역사, 인물, 건축 등의 지역자원을 직접 조사해 도시재생 콘텐츠를 알 수 있는 트레킹 지도와 달력용 도시재생대학 성과물로 제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지난달 2일 ‘광주다운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이란 주제 총 7주 과정으로 도시재생전문 교수진의 특강 및 실습으로 진행됐



며,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목포목원동 일대 및 근대 문화의 거리’를 견학했다. /최권범기자

조원진 조선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조원진 조선대병원 비뇨의학과 조원진 교수가 최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조 교수는 비뇨의학과와 배뇨장애 및 요실금, 그리고 여성 비뇨 분야의 전문가로서, 메타 분석을 이용한 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교과서 및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대한비뇨의학회 교육정책위원,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이사 및 기획위원 간사, 한남비뇨의학회 학술위원을 역임하는 등 진료와 학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송지기자



송원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학교발전기금 750만원 쾌척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윤석암) 입주기업이 지난 12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발전기금 출원 기업은 송원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온도센서 제품류 제조업체인 진우테크(대표 박민주)에서 450만원을, 젯병 세척기 제품류를 생산하는 아이앤비(대표 김철)에서 300만원 등 총 75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진우테크와 아이앤비 대표는 송원대에서 이번 발전기금으로 지역의 우수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남부대, 시립요양병원서 뷰티서비스 개강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산학협력단은 최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에서 뷰티요양서비스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과 김광란·신수정 의원, 오영걸 광주시 일자리정책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선 센터장,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조성범 이사장,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신민철 본부장, 전남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이정래 교수 등이 참석했다.
뷰티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와 뷰티서비스를 접목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양질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병원·요양전담 종사자와 재가서비스(가사간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간병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사업’으로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우암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정숙희 남부대 향장미용학과 교수는 “뷰티요양케어서비스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 확대와 전직 일자리 창출에 발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성과를 내 다양한 뷰티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결혼

●강성배(송강건설 회장)·송점옥씨 장남 강산, 신부 에리나양=17일(토) 낮 12시30분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볼룸
●김성형(전 광주동성중 교장)·김준보씨 차남 우일군, 양인형씨 장녀 유정양=광주 피로연 17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S타워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볼룸. 결혼식 31일(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하이트비틀 4층 W홀

부음

●장우일씨 별세, 박대성(해럴드경제 광주·전남 주재기자)씨 장인상=발인 15일(목) 오전 10시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061-262-6666)